



최경주가 5일 하와이에서 열린 PGA 개막전인 메르세데스-벤츠챔피언십대회 1라운드 18번홀에서 어프로치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 새해 첫 출발 "굿 샷"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거금 1천만 달러가 걸린 페덱스컵 제도 도입으로 '새 시대'를 맞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07년 시즌 첫 라운드를 깔끔하게 치러냈다.

최경주는 5일(이하 한국시간) 하와이주 마우이섬 라하이나 플랜테이션골프장(파73.7천411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시즌 개막전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9타를 때렸다.

비제이 싱(피지), 스티븐 에임스(캐나다), 윌 매켄지, 브렉 웨더리(이상 미국) 등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오른 최경주는 새해 첫 대회에서 우승을 욕심낼 수 있게 됐다.

첫 티샷의 주인공 최경주는 1번홀 티잉그라운드에서 "2006년 크라이슬러챔피언십 우승자, 케이제이 초이"라는 장내 아나운서의 소개에 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3번 홀로 힘차게 페어웨이를 갈았다. 깃대가 쓰러질 듯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최경주는 3번홀(파4)에서 보기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5번홀(파5) 버디로 분위기를 바꾼 뒤 상승세

PGA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1R 비제이 싱 등과 공동 1위 고감도 아이언 샷...4언더

로 돌아왔다. 7번(파4), 8번(파3), 9번홀(파5)에서 줄버디를 뽑아내 선두로 뛰어 올랐고 10번홀(파4) 보기를 12번홀(파4) 버디로 만회하면서 순위표 맨 윗자리를 지켰다. 5개홀에서 지루한 파행진을 이어가며 이맹민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던 최경주는 18번홀(파5)에서 두번째샷을 그린 근처에 떨어뜨린 뒤 가볍게 1m 버디를 성공시켜 기분 좋게 공동 선두로 첫발을 마무리했다.

지난해부터 스윙 교정에 착수한 최경주는 그린 적중률이 무려 88.9%에 이르는 고감도 아이언샷을 뽑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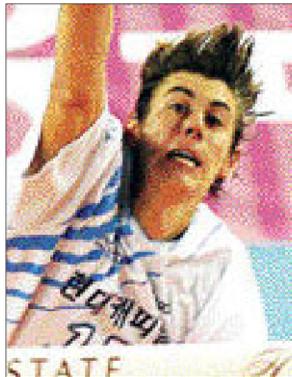
정규타수만에 그린에 볼을 올렸을 때 홀당 1.750개로 나타난 퍼팅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다. 특히 장타가 필요할 때는 장타를 치고 정확한 공략이 요긴할 때는 거리를 줄이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원숙한 안금 조절이 돋보였다.

최경주는 경기 끝난 뒤 물러든 취재진에게 "페덱스컵 도입으로 의미가 더 커진 시즌 첫 라운드를 잘 치러내 기분이 좋다"면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평소 훈련하는 텍사스에서 바람에 익숙해진 덕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PGA투어가 올부터 도입한 페덱스컵은 1월부터 8월까지 치러지는 36개대회마다 성적에 따라 주어지는 포인트로 144명을 추려 플레이오프 격인 4개대회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대회에는 30명만 출전해 최종포인트 최다 선수에게 1천만 달러가 돌아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로배구 오늘부터 2라운드 돌입



〈현대캐피탈 루니〉



〈삼성화재 레안드로〉



〈대한항공 보비〉



〈LIG 원터스〉

지난 달 23일 개막된 2006-2007시즌 프로배구 남자부 코트에서 가공할 공격력을 앞세워 각종 기록 사상과 '코트 반란'을 주도했던 외국인 선수들이 6일부터 시작되는 2라운드에도 불꽃 대결을 이어간다.

올 시즌 '용병 지존' 싸움은 지난 해 현대캐피탈을 통합우승으로 이끈 루니 유일하게 재계약에 성공한 손 루니의 부진 속에 브라질 출신의 레안드로 다 실바(삼성화재)와 보비(대한항공)가 코트에 맹폭을 퍼부으며 '삼바 불꽃'을 일으키고 있다.

또 캐나다 현역 국가대표인 프레디 윈터스(LIG)도 공격 부문 상위 각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용병 전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현재 득점 부문은 한 경기 최대득점 신기록(49점) 보유자인 '괴물' 레안드로가 137득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41점을 사냥했던 대한항공의 '신형 엔진' 보비가 120득점으로 바짝 뒤쫓고 있다. 또 윈터스와 루니도 각각 부문 3위(97

득점)와 4위(94득점)로 지난 해 득점왕인 '토종 거포' 이경수(86득점·LIG)를 따돌렸다.

2라운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영원한 라이벌'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6일 맞대결.

삼성화재는 지난 해 겨울리그 10연패를 좌절시켰던 현대캐피탈과 지난 달 24일 개막전에서 짜릿한 3-2 승리를 거두고 첫 단추를 잘 꿰었다.

당시 레안드로는 혼자 후위공격 20개를 작렬하며 49점을 쏟아 담은 반면 루니는 22득점에 그쳐 체면을 구겼다.

현대캐피탈의 레프트 루니와 삼성화재가 루니 대항마로 영입한 레안드로가 네트를 사이에 둔 재대결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현대캐피탈은 특히 3승2패로 삼성화재, 대한항공에 이어 3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 선두권 진입 발판을 마련하려는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라이트 보비와 레프트 윈터스 간 6일 맞대결도 관심거리다.

보비는 지난 달 23일 14득점 부진 속에 24점을 뽑은 윈터스와 관중패짜리 개막전 1-3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하지만 보비는 '천적'이던 현대캐피탈 전 3-2 승리와 지난 3일에는 7년 간 26년 패를 허용했던 삼성화재마저 3-2로 잡는데 앞장 서 첫 패배를 안겼던 LIG의 윈터스를 상대로 설욕을 노리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 펼쳐지는 삼성화재-대한항공 재대결에서는 올 해 득점왕을 다투는 브라질 용병 레안드로와 보비가 최고 용병 자존심을 걸고 다시 격돌한다.

이에 따라 본격 순위 싸움을 재개하는 2라운드에서도 팀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용병들의 활약에 따라 프로 4개 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용병들 지존 싸움에 코트 열기 더욱 후끈

'종합선수권 불참' 김연아

세계선수권 출전 가능할 듯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허리 디스크 초기 판정으로 제61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에 불참하게 된 김연아(17·군포수리고)에게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빙상연맹 피겨경기심판위원회(위원장 신건조 피겨부회장)는 5일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팅장 회의실에서 1시간 가량 회의를 열고 "김연아는 현재 국내 선수 중 가장 기량이 뛰어난 선수일 뿐 아니라 세계랭킹도 가장 높은 선수"라며 "김연아에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오는 9일 경기도 고양에서 열리는 종합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경우 부상이 나빠질 수 있어 선수 보호차원에서 불참해도 출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국제대회에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은 김연아에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주는 대신 오는 9일 종합선수권대회 상위 1-3위 선수에게 4대륙 선수권대회에 나서도록 했다.

프리미어리그 3인방 잇단 출격

오늘 밤-설기현

내일 밤-박지성

모레 새벽-이영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30·토트넘)가 6일과 7일 밤(이하 한국시간) 136년 전통의 잉글랜드 FA컵에 나란히 출격한다.

설기현은 6일 자정 런던 근교 마데스키 홀구장에서 챔피언십(2부리그) 버리 FC와 맞붙는 FA컵 3라운드 64강전에 나선다.

챔피언십 울버햄프턴의 유니폼을 입고 있던 작년 이맘 때 설기현은 FA컵 64

강전 FC밀월과 경기에서 통렬한 왼발슛으로 선제 결승골을 뽑아낸 적이 있다. 설기현은 이 때 활약으로 울버햄프턴 1월의 선수로 뽑히며 짜릿한 새해를 맞았다.

박지성은 7일 밤 11시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홀구장에서 프리미어리그 아스톤 빌라와 FA컵 64강전을 벌인다.

주전 경쟁을 위해 중요한 한 판이고 팀 입장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경기다.

만유는 13일 자정 정규리그에서도 아스톤 빌라와 또 맞붙는다.

그런데 이 팀이 만만한 게 아니다. 순위는 13위로 한참 쳐져 있지만 지난 3일 리그 2위 첼시와 득점없이 비기면서 잔뜩 자신감에 차 있다.

정규리그 일곱 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으로 토트넘의 왼쪽 윙백으로 복귀한 이영표는 이보다 두 시간 늦은 8일 오전 1시 챔피언십리그 8위 카디프시티와 원정 경기에 나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6일(토)

▲PGA투어 메르세데스 벤츠 챔피언십 2R(08:00·SBS스포츠)

▲대학장사씨름 4차대회 역사급(14:00·MBC ESPN)

▲프로농구(KT&G-오리온스)(14:50·Xports)

▲WTA 테니스 왓슨스 워터 결승(15:20·SBS스포츠)

▲V-리그(삼성화재-현대캐피탈)(13:30·KBSN SPORTS), <KT&G-흥국생명>(16:00·KBSN SPORTS)

▲여자농구 겨울리그(KB국민은행-신한은행)(16:50·SBS스포츠)

7일(일)

▲V-리그(LIG-삼성화재)(13:30·KBSN SPORTS), <도모공사-KT&G>(16:00·KBSN SPORTS)

▲프로농구(오리온스-삼성)(14:50·Xports), <동부-모비스>(17:20·Xports)

▲여자농구 겨울리그(금호생명-신세계)(16:50·SBS스포츠)

▲FA컵 3R(맨체스터 Utd-아스톤빌라)(23:00·MBC ESPN)